

# 지역 맞춤형 폐교활용 아이디어 발굴

### 도교육청, 오늘·내달 2일 도내 폐교 현장 방문... 지역사회 등과 상생 방안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맞춤형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폐교활용 TF팀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의 폐교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한 데 이어 오는 28일과 5월 2일에는 도내 폐교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더불어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폐교활용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이다.

폐교시설 활용은 단순히 폐건물과

부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

먼저, 28일에는 임실서초, 임실오공초, 용곡초, 회룡초, 고부여중 등 임실과 정읍지역의 폐교를 방문한다. 이어 5월 2일에는 상남초, 금성초, 여산서초, 여산남초, 용북초 등 익산지역의 폐교를 둘러볼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도내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폐교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지속적인 협업과 논의과정을 거쳐 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교는 지역민의 추억과 역사가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라면서 "지역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폐교는 모두 42곳으로, 자체활용 18개교, 사업추진중 9개교, 대부 6개교, 매각 예정 2개교·섬 지역에 위치한 보존 폐교 7개교 등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올 반부패 추진계획 협의·정책 제안

### 도교육청, 서 교육감 주재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 첫 회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감 주재의 협의체로, 본

청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 부서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유·분석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협의 및 정책 제안 △부패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 △청렴시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이다. /정은성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를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다.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은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부서별로 수립한 청렴실천 자율과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

### 도교육청, TF 구성... 적정 인력 배정기준 마련·현장 의견 수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배정기준 마련을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 TF'를 구성,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학교별 여건과 교육수요 변화 등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배정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학교별 특수성과 학생 수 급감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정기준 마련 △인력 운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책 강구 △현장 중심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합리성 확보 등이다.

먼저, TF팀은 노동조합 추천 인원과 전·현 정위원, 학교 근무자 등을 직급별로 고려해 25명으로 구성했으며, 28일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2~4회 협의회를 가질 예

정이다.

특히 TF팀에서는 타 시·도교육청 배정기준 비교 분석과 현장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쳐 9월중에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 증가와 미래지향적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기준 마련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안전사고 No!'... 전북대, 축제 안전대책 전반 검토

### 내달 개최 동인제·대동제 등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 열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5월 3일 예정된 동아리 축제인 '동인제'와 5월 10~12일 열리는 대동제를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됨에 따라 대학이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27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동인제·대동제 축제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덕진경찰서와 덕진지

구대 덕진소방서 등 실무진들과 대학 축제 관할 부서인 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대동제가 열리는 5월 10~12일까지 교내에서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중석 학생처장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모두가 즐거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천원의 아침밥' 기부행렬 동참 전북대에 5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이 학생들의 호응속에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인 (유)술소리가 '천원의 아침밥'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근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1,000원, 대학에서 2500원 등을 지원해 매일 아침 100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LINC3.0 사업단도 동참하는 등 수혜 학생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유)술소리 양인모 전무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이 사업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정희석 우석학원 사무국장 우석대 산학협력단장에 임명

정희석 학교법인 우석학원 사무국장이 5월 1일자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신입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차별화된 산학협력 허브를 구축하고, 대학발전과 기업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신입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1999년 우석대학교에 부임, 우석대의료원 사무처장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우석학원 사무국장과 우석학원의 수탁운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지원본부장 등을 겸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8일 오후 2시 공과대학 해동도서관 첨단강의실에서 2023년도 전력전자학회 전라지부 춘계학술 교류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 교류 발표회는 전북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융성사업단 전주대 LINC3.0 사업단 친환경 공학기술융합연구소, 전북대 스마트그리드연구소, 원광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전력전자학회 전라지부가 주관한다.

이번 춘계학술 교류 발표회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전력 변환 기술네트워크 확산이란 주제로 전라지역 내 여러 기관 참여업체, 대학에서 오를 세션 12편 포스터 세션 11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기술 교류 활동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의 전력변환장치, 전력전자 분야의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북지역 기업과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6일 남원시의회를 방문, 시의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서부권 4개 학교 통합, 주민 의견 통합 먼저"

서거석 교육감,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교육정책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6일 남원시의회(의장 진병기)를 방문, 시의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서거석 교육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명품 학교 건립을 요청했다.

먼저, 이기열 의원은 "남원 서부권 중학교 가운데 송동중, 수지중, 대강중, 금지중 등 4개 학교 학생이 총 37명이다"면서 "동 지역에 명품 중학교를 건립해 이 학생들이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중열 의원은 "서부권 명품 중학교가 신설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명품 중학교는 동 지역이 아닌 먼 지역이 적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숙자 의원은 "명품 학교를 신설하면 남원 교육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학생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염봉섭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통합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통합 후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부권 4개 중학교를 통합한 별도의 중학교를 건립해달라는 공식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 활용에 대해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 활용사업을 제안할 경우 매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일반직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전국공노조 도교육청지부 "조직개편 후 업무 강도 높아져 인력 대비 업무량 조사하고, 정책속도 완급 조절도 필요"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의견 수렴, 노동환경 개선 나설 것"

조직개편 이후 도교육청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이하 전공노)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나치게 빨리 업무량이 늘고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는 현장의 성토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분청과 직속기관, 지원청,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노동상태를 점검하고 인력 조정, 조직문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28일 이들 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업무담당자 위주의 노동 강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일반화 현상이며 업무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가·병가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노동강도 심화 현상은 최근 성과주의 행정과 속도를 요구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력을 담보로 해야 한다"면

## 남원교육문화회관, 단체 대상 도서대출 서비스... 내달부터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기)은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학교 및 기관, 직장 등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에 단체회관 가입 후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기관(단체)은 희망도서 목록 제출과 택배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당 1회 100권까지 대출일로부터 3개월 간 이용이 가능하다. 회관 소장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도서가 회관에 비치돼 있지 않을 경우 회관 운영기준에 따라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해 대출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